

제 2 주제

범죄예방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활용방안

이 호 창

(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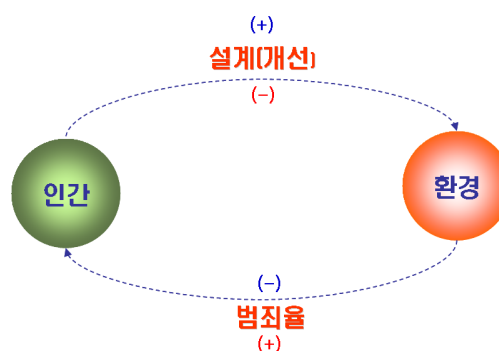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지역공동체는 붕괴되고, 주거형태 또한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듯 극심한 도시화와 개인주의화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줄여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실을 일상화시키며 우리의 생활 주변이 범죄에 좋은 토양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범행동기 또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인간관계의 결렬에 따른 노인범죄, 연쇄살인 범죄,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증폭시켰다.

범죄예방 방안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던 UD(Universal Design)적 문제해결 방식이 범죄예방활동에 있어 새로운 관점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예방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확립시키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UD의 활용방안이 다.

2)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범죄연구는 범죄인의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을 연구하는 범죄인의 기질론적 접근(dispositional approach)과 범죄가 빈발하는 특정장소의 상황적 요인들을 연구하는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의 두 가지로 구분해왔다. 범죄인의 기질론적 접근방법은 범죄란 ‘가해자의 불법적 행위’로 정의되지만, 상황적 접근방법은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특정장소에서 벌이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즉, 범죄예방이란 인간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범인’이 아닌 ‘범행 장소’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거주공간에만 중점을 두는 산업적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디자인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있어 범행이 일어나는 “장소 또는 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그림1-1)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범죄율의 변화

그러나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심리적 측면의 안도감, 쾌적함까지 고려되어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생활환경 제고에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단

순히 물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만이 범죄예방의 유일한 해결책인지 검증해야 할 것이며,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의 배경

1) 왜 유니버설디자인 인가 ?

20세기 공업사회는 ‘평균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실체가 모호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의 양적 공급에 치우쳐 발전해 왔다. 이러한 디자인은 막연히 ‘평균적인 소비자’로 파악해 온 사용자가 다양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며, 다양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디자인은 사용자의 신체기능의 차이에 따라 소속된 사회에서 소외감을 유발하는 차별요인으로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시대에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대상이 아닌 보편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의 디자인에 대하여 의식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지금 우리들은 디자인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Social Design으로서 대표되는 UD는 1980년대 미국에서 이전까지 행해왔던 제작자 위주의 디자인 방법론을 재검토하려는 필요에 의해 그 중심적 존재인 론 메이쓰가 제창하였으며, 90년대에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법이 계기가 되어 건축이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UD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였던 론 메이쓰의 베리어프리(barrier free)적 관점에서 발전된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으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UD는 건축이나 제품 설계의 사용성에 관한 디자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여러 계층이 공존하고 있는 다양성 시대 속에서 본래 일본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길러 온 ‘배려’와 ‘친절’이라는 사상과 함께하며 점점 삭막해져가는 인간관계와 범죄의 증가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대처로서 그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다.

확장된 개념의 UD는 단순히 건축과 제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의 정도가 아닌 ‘사물과 공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사람 중심 디자인을 위한 인간행태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한다. UD연구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인간행태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소속된 사회, 인간심리 등을 밀도 있게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안전’과 ‘안심’까지 포용하는 이론적 접근이며 범죄예방 연구에도 활용 가능하다.

2) 범죄예방과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나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의 디자인’이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UD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Security Town’의 구성에 접목 가능하다. 지역 주민간의 교류가 기본인 UD는 이웃과 잘 알고 지내고, 이웃들과 함께 하는 바자회나 동네잔치와 같은 행동들이 일어나게끔 유도한다. 이러한 지역주민간의 교류는 범죄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내외 연구사례도 있다.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김지선 외, 2006년)’에 따르면 이웃 간 유대가 높을수록 범죄피해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연구(전영실, 2005년)’와 ‘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조사연구(김성언, 2003년)’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의 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합이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기술한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거주이동률이 높으며, 인종이 다양하고, 해체된 가정이 많을수록 사회사회의 유대가 낮아지고, 궁극적으로 범죄와 비행이 증대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렇듯 주민간의 교류증대가 목표인 UD의 개념은 다양한 범죄에 일률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든 장소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기존의 범죄예방활동방안의 한계점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2-1) 공공을 위한 가치,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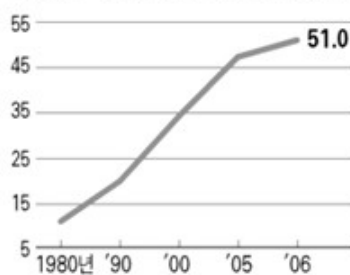
(그림2-2) 범죄예방과 UD

3) 범죄현황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으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특히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점증하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1995년에 25수준이었던 고령화 지수는 2006년에 51을 상회하고 있으며, 게다가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 2026년 20.8%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지수

※고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인범죄 증가율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7

연도	전체 범죄	61세 이상	60-64	50-59	40-49	30-39	20세 이하
2000년	2,241,635 (100%)	54,371 (2.4%)	177,698 (7.9%)	492,029 (21.9%)	641,816 (28.6%)	448,542 (20.0%)	168,335 (7.5%)
2002년	2,297,030 (100%)	57,527 (2.5%)	181,110 (7.9%)	540,556 (23.5%)	616,969 (26.9%)	473,192 (20.6%)	142,854 (6.2%)
2004년	2,284,095 (100%)	66,943 (2.9%)	206,016 (9.0%)	597,211 (26.1%)	593,478 (26.0%)	427,876 (18.7%)	90,263 (4.0%)
2006년	1,932,729 (100%)	82,323 (4.3%)	212,343 (11.0%)	513,821 (26.6%)	460,643 (23.8%)	305,805 (15.8%)	80,124 (4.1%)
평균 증가율	13.6%	68.4%	36.3%	43.0%	-3.8%	8.8%	20.4%

(표2-1) 고령화 지수

(표2-2) 노인범죄 증가율

이처럼 과거에 비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젊어진 노인인구의 대거 등장은 노인의 실질적인 비(非)노인화 현상을 보편화시킴으로써 노인과 범죄와의 관계 특히 노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종래의 노인관련 범죄 연구에서는 주로 노인의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젊은 노인들의 증가 현상은 노인이 더 이상 범죄의 피해자만은 아니며 범죄 가해자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2007년에 발생한 전남 보성의 소위 '노인과 바다' 범죄(70대 어부노인이 성충동으로 인해 젊은이들을 선박에 태워준 뒤 살인한 사건), '승례문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의 범죄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단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들이 매년 10% 정도 늘어나 노인범죄의 증가율이 전체 범죄의 증가율을 추월하여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향으로 보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함에 대한 부작용이 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지난 20년 사이 노인범죄가 5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경우도 가족 및 사회와의 커뮤니티 부재에 따른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고독'대신 '교도소'행을 택하는 노인의 증가는 이러한 사회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

한 접근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 내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야함을 시사한다.

3. 국내 범죄예방활동 현황 파악 및 분석

1) 기계적 장치를 활용한 범죄예방활동

① CCTV

최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방범용 CCTV설치가 예산만 낭비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과거 강력사건이 발생하였던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은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앞 다투어 적게는 수십대, 많게는 수백대씩 설치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신설하는 등 최상의 범죄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기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 범죄 대응책을 제시했다고 여기며 후 처치에 대한 관리는 관망하고 있다.

방범CCTV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한 기법으로써 도시보안상 자연적인 감시관찰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에 기계적인 감시관찰의 방법으로써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방범CCTV의 설치 이전에 지역 내 범죄발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최적의 위치 선정 및 설치 후 부단한 모니터링, 작동상태 관리, 적정 조명설치 등 부수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림3-1)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주차통로만을 감시하고 있어 범행사각지대 발생(좌)



(그림3-2) 대구경찰청 출입통제시스템(우)

② 출입통제 시스템

최근 대구경찰청은 청사 출입통제를 위한 카드 및 지문인식기 출입의 방호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왕래가 잦은 공공기관에서 이동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출입시스템이 주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하며 철용성 청사를 구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출입시스템 설치가 청사 자체 방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청 위민행정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CPTED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활동

국내 H건설은 충남 당진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 도둑이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에 폭 12cm 정도의 사각형 덮개를 씌우고, 1·2층에는 창문에 적외선 감지기를 다는 등 곳곳에 CPTED기법을 적극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차와 사람이 감지된 곳의 반경 10m에서는 LED조명이 최대 밝기로 켜지고, 인근 구역은 50% 내외, 이용자가 없는 구역은 5~10%로 밝기가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도 적용했다. H건설 관계자는 ‘사람이나 차가 지나는 구역은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범죄 의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최근 신축 아파트나 뉴타운지구에 마케팅 수단으로 도입되어지고 있는 CPTED는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림3-3) 잠실 트리지움, 저조도 야간조명 대량설치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20~30년 전부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좁은 의미의 CPTED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단계서부터 도시설계에 CPTED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국내의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범죄예방을 위해 이러한 CPTED원리를 반영한 곳이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푸른 가로등 설치 후 범죄가 줄었다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달 전 31개의 골목길에 푸른색 가로등 80여개를 주택가 곳곳에 설치하였다.

심리적 안정을 주는 파란색 빛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아 무섭다’며 가로등 색깔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파란 가로등이 설치된 곳이 무서워 다른 길로 돌아서 다니기까지 한다. 이러한 주민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구는 본래의 주황색 가로등으로 한 달만에 재교체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 저하, 예산낭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무마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09년 6월에 CPTED가 기본이 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으로서 CPTED의 적극 도입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국내정서와 맞지 않는

‘푸른 가로등’ 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림3-4) 주민들 사이에 범죄 예방 VS 을씨년스럽다는 ‘푸른 가로등’

3) 지역민 주체의 범죄예방활동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연대은행은 아동대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안전한 학교길 지원을 위한 ‘우리아이 安Zone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안전지도사들이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우범지역의 순찰활동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관악구, 용산구 지역 내 저학년아동, 장애아동, 기타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안전지도사는 지역내 노인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 완료되었다. ‘우리아이 安Zone 캠페인’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안전 지도사를 통해 아동의 교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직 노인에게는 보람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매달 80만원을 들여 관내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있다. 경찰관이 요구르트를 전하면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다. 이는 사망한지 몇 달 만에 발견되는 노인문제를 방지하고, 정기적인 경찰의 방문으로 독거노인 타겟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독거노인 보호활동 사업의 일환이다.



(그림3-5) 독거노인 안전 확인



(그림3-6) 자전거 자율방범대

송파구 풍남동 지역 파출소가 지구대로 통합되면서 출동시간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좁

은 골목까지 순찰차가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주 2회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동네 곳곳을 훑는 자율방범대가 자전거 순찰로 변경되었다. 자영업자와 회사원 등 주민 25명으로 구성된 방범대원들은 회의를 열어 차량 순찰은 경찰에 맡기고 방범대는 자전거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지역민이 주체가 된 자율방범활동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영토적 소속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방범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CCTV와 같이 기계적인 장치에 할당되는 예산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자원봉사차원에서 탈피한 방범대원으로서의 책임감 증대가 요구된다.

4) 국내 범죄예방활동 분석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범죄예방 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기계적 장치를 활용한 범죄예방 방안이다. 이 방안은 예산을 투입하여 그 성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공공기관이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장치의 설치수량이 평가측정지표로 지정됨에 따라 사후 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과 서비스대상자로서 주민의견의 수렴이 부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로, CPTED기법을 활용한 범죄예방 방안이 있다. CPTED란 생활 주변의 범죄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최근 국내 건설사 및 공공기관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CPTED기법이 적용된 국내사례의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해외사례를 모태로 한 단순적용에 불과하며 그 결과로 한국정서와 맞지 않는 일부항목들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CPTED의 한국화 과정을 위해서는 기초연구로서 지역민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인적자원을 활용한 범죄예방 방안으로서 지역민이 주체가 된 자율방범대가 있다. 지 주민이 주체가 된 자율방범대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공동체문화를 복원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영토적 소속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특정시간대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대처방안으로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로서의 자율방범대로부터 확장시켜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방법과 자연적인 접근방법이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하여 넓은 의미로서의 통합적 범죄예방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5) 범죄예방활동의 목표 및 전략

이상의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에 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범죄예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활동목적을 지역주민의 안전보다 가시적인 성과측정을 상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 전 방향설정을 확실히 지정해야만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이 주민의견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민참여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구축 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워크숍, 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수반되어 주민참여율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방식과 자연적인 접근방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물리적인 접근이란 하드웨어적이거나 자본집약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사람들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이나 알람, 감시카메라를 활용한다. 조직적 접근방법이란 노동집약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경비원이나, 학교나 백화점에서의 감시요원을 두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두 접근법과는 반대로 자연적 접근방법은 자연스레 행해지고 있었던 행동의 관리방법이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접근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조직적, 기계적 접근법도 결국 자연적 접근법이 적용된 환경에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4. 범죄예방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활용방안

1)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

일본 법무성에서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회운동의 슬로건은 ‘당신도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첫 걸음으로부터 범죄와 비행 등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취지이다.

일본 법무성이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①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

광고 활동과 각종 미디어를 이용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표어와 작문을 모집하는 것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

범죄와 비행을 테마로 한 강연회나 소모임, 워크숍, 포럼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③ 협력관계 구축

학교 방문과 집회를 통해 개인·가정·학교·지방공공단체·복지기관 등 관련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림4-1)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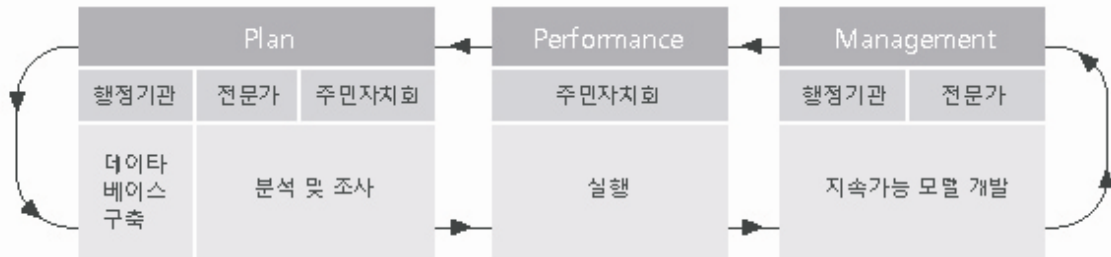


(그림4-2) 워크숍



(그림4-3) 강연

현재 국내에서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가 기본이 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을 오는 2009년 6월까지 마련하려는 계획에 있지만 조례제정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외시킨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가 된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전문가와 관련기관들이 주민들의 뒤에서 항상 서포트할 수 있는 지식과 자세를 갖추어 전문가와 행정기관 및 주민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해야함을 말한다.



(그림4-4)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관, 전문가, 지역민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2) 범죄예방 교육의 심화와 확대

범죄예방과 관련된 지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기본업무교육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전문지식을 확보하여 범죄예방 관련 기관 간 협력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함이다. 특히 범죄예방 교육 매뉴얼의 개발, 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교육콘텐츠와 교육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인증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이수자 활용 모형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바 범죄예방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만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범죄현장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일반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인식의 저변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 교육의 경우 '우리 마을 UD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4-5) 우리 마을 UD탐험

'우리 마을 UD탐험'이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주변의 범죄유발요소를 추출해 Security Map을 제작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주민 모니터링 방식은 서비스대상자로

서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영토적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범죄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포기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범죄예방 전략 수립

범죄예방에 있어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방법과 자연적인 접근방법이 서로 중첩적이며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범죄예방 전략은 있는 그대로의 환경자체를 자연적·일상적으로 이용하여 자연적 접근통제와 감시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통합적 전략의 첫 번째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공원, 산책로, 벤치)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영국 런던에는 굳이 강압적으로 통제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에 의해 외부인의 침입이 자연스럽게 관찰될 수 있도록 만든 주민 도서관이 있다. 수습 불능의 할렘가 아파트 단지를 헐고 새로이 개관한 이 도서관은 현관 앞 넓은 터를 주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이곳에 자전거며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놀이 공간 및 산책로로서의 역할을 가미하였다. 할렘가의 거친 청소년과 부딪칠까 사람들이 잔걸음으로 통과하던 뒷골목길이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으로 변한 것이다. 굳이 자율방범대나 경찰의 도움 없이 주민들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역 내 범죄발생률은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관으로서가 아닌 지역재생 및 범죄예방의 순기능을 하는 사회적 대처로서의 디자인이라 설명할 수 있다.

통합적 전략의 두 번째 방안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요식업체 배달원 순찰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그동안 자율방범대의 한계점이었던 특정시간대의 특정지역 감시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를 제거해주며, 방법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범죄현장 목격 시의 고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1) 기대효과

앞서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활동으로 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의 구축 둘째, 범죄예방교육의 심화와 확대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 수립의 세 가지 세부실천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성된 안전 안심한 마을에서는 첫째, 범죄율 감소를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둘째, 주민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셋째,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보다 증대 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